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ttracting Strategy of FDI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심재희(Jae-Hee Shim)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제1저자)

백형엽(Hyung-Yeop Baek)

전남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 | V.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
| II. 이론적 고찰 | VI.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장애요인, SWOT 분석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광주·전남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FDI 유치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FDI 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FDI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제 도입도 FDI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주제어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투자인센티브, 외국투자기업, 지역산업정책 방향

I. 서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 상환 등과 같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자본을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외국자본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필요한 자본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경영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준다(이흥구, 1994; 산업자원부, 2001; 강태구, 2003). 따라서 오늘날 공업화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자국의 경제발전이나 기술습득을 위해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Guisinger, 1985; 전의천, 2000; 최백렬, 2005; 이남구, 2006; 이진철·김현철, 2008; 김재철·오병기, 2008; 여택동·이민환, 2009; 이학노, 2010). 그 결과 오늘날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최적투자국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FDI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일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독특한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FDI는 2009년 현재 전국 대비 건수 면에서는 3,131건 중 30건으로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면에서는 114억 8,417만 8천 달러 중 4억 5,928만 3천 달러로 4%를 점하고 있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1>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산업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FDI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도 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등)와 홈페이지(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에 대해서 광주·전남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투자를 받아들이는 피투자국 요인(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효과적인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FDI 유치제도를 개발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써 FDI의 경제적 효과와 결정요인에 대해 정리한 후 제 III 장에서는 FDI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IV 장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한 다

음, 제V장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서술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¹⁾

1) 경영자원 확보효과

FDI는 통상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경영자원을 가지고 피투자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투자국은 이러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여타의 방법으로는 확보가 불가능한 이들 경영자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투자국은 FDI를 통해 이러한 경영자원의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더 많은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이홍구, 1994; 산업자원부, 2001).

2) 경제성장 촉진효과

피투자국은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스톡이 증대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신기술과 선진 경영관리기법 등이 도입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특정산업에서 생산이 증대되면 제품판매를 위한 마케팅체계가 확립되는 등 전후방연관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노동수요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통상 해외로부터의 순자본 유입은 국내저축이 23% 감소되는 것과 동일한 투자증대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eiskopf, 1972; Vernon, 1977; 대한상공회의소, 2000).

3) 고용창출효과

피투자국은 FDI를 받아들여 자국의 공업화를 이룸으로써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외에서 수많은 현지인력을 대량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

1) FDI는 피투자국(현지국)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실만으로도 FDI의 고용창출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UNCTAD,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FDI의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estphal, 1973; 한국신용평가, 1987).

4) 기술습득효과

FDI는 그 본질상 제조기술 및 관리적·조직적 기술을 수반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피투자국은 이러한 FDI를 통해서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Chen, 1983).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들은 기술 및 자본, 그리고 위험부담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피투자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약 80%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피투자국이 이를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Delorme, 1982).

5) 국제수지 개선효과

FDI는 피투자국에 자본을 유입시켜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피투자국의 자본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수출비율이 높고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FDI가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피투자국의 국제수지를 크게 개선시켜 준다(김준동, 1994).

6) 세수증대효과

FDI는 피투자국에 선진경영기법 등을 가지고 들어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창출하므로 피투자국은 이러한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OECD, 1998).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얻은 이윤을 그곳에 재투자하여 다시 높은 이윤을 얻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피투자국은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강태구, 2003).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1) 우위요소의 활용

FD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노하우, 전문지식 등의 우위요소를 피투자국에 이동

시켜 가장 이익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우위요소 중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우위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이 외에 관리상의 전문지식, 기술상의 우위 등도 중요한 우위요소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유리한 접근, 조직상의 전문지식 등도 중요한 우위요소에 속하고 있다(Dunning, 1986). 그러나 제품의 특성은 별다른 우위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기존시장의 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위요소 그 자체는 FDI가 이루어지기 위한 단순한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결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우위요소를 해외투자라는 방식을 통해 피투자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해외시장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유지 혹은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UNCTAD, 1992).

3) 시장의 규모

FDI의 유입은 피투자국의 GNP 및 그 성장률로 표시된 시장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Coughlin et al, 1991; Friedman et al, 1992).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차적인 투자동기가 피투자국 시장에 대한 제품판매에 있다는 것으로 입증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FDI의 규모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클수록 전 산업에 걸쳐 경제적 규모의 공장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FDI의 유입이 촉진된다.

4) 저임노동력

저임노동력은 특정제품의 교역에 있어서 비교우위로 간주될 만큼 FDI의 유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Dunning, 1980). 특히 이러한 경향은 노동집약적인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FDI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통상 자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저임노동력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다.

5) 투자유인책

피투자국의 각종 투자유인책은 FDI의 유입에 결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피투자국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유인책으로는 세계상의 유인책, 관세상의 유인책,

재정지원, 제품판매 허용, 연구개발지원 등을 들 수 있다(Coughlin et al, 1991; UNCTAD, 1996a; 김준동, 1997). 투자유인책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의 경우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용규 외, 1999).

6) 정치적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은 FDI의 유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 피투자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이나 투자자산 혹은 수익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Root, 1994). 따라서 피투자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그 나라에 대한 FDI의 유입이 크게 위축된다.

이상에서 FDI의 일반적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통상 현지국 시장수요, 생산효율성, 기술력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며 정치적 안정성, 사회정서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센티브, 생활환경 등 사업편의적인 요인들은 부수적으로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UNCTAD, 1998; 임성훈, 1999).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들은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78%), 우수인력 및 기술력(26%), 아시아시장 진출거점 확보(20%) 등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들고 있다(산업자원부, 2003).

Ⅲ.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

1. 연구동향

우리나라 FDI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연구수행 주체와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학술연구와 용역연구로 대별된다. 학술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FDI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의 FDI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전의천, 2000; 강태구, 2003; 김용환, 2004; 오수균, 2004; 최백렬, 2005; 박의범·김치호, 2005; 송영남, 2005; 이남구, 2006; 여택동·이민환, 2009; 이학노, 2010). 전의천(2000)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FDI를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SOC,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유치의 행정지원체제 등을 중심으로 두 지역의 FDI 유치에 대한 잠재성을 검토하고 1997-1999년간의 투자유치 현황과 추진성과를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FDI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촉진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유인제도 정비와 국제적 수준의 SOC 확충, 적극적인 투자자 관리관계로 후광효과 유도,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담당 공무원의 FDI 유치역량의 배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등의 수행과제를 강조하였다.

강태구(2003)도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FDI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여 양 지역의 FDI 환경과 현행 투자유치정책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선도 외국기업 유치와 투자지원 서비스 및 원스톱 서비스 강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투자유치 협력강화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하지만 1999-2002년간 광주·전남지역의 FDI 동향을 연도별, 산업별, 투자국별, 투자규모 및 투자유형별로 상세히 살펴봐왔으나 광주와 전남을 각기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지역의 특성상 FDI 유치과정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났는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용역연구는 국책 및 민간연구소나 지자체 연구소들에 의해서 실무 및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FDI 유치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거나 직접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FDI 유치 활성화 방안과 실태조사, 유치사례, 장애요인 등을 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김준동, 1997; 박상철, 1998; 정대철, 1999; 한국은행, 2002; 권순우·김성표, 2003; 광주광역시, 2003; 이종성·송영건, 2003; 이지석, 2004; 이견철·김현철, 2008; 김재철·오병기, 2008).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박상철(1998)의 연구와 광주광역시(2003)의 연구가 있다.

박상철(1998)은 광주지역의 FDI 유치를 위한 촉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먼저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개관한 뒤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유화 조치 및 유인제도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FDI 유입 및 촉진제도를 기반조성단계, 자유화단계, 선진화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그는 광주지역의 FDI 유치를 위한 촉진방안을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이루어진지 10년 이상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광주광역시(2003)도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FDI 유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문헌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FDI의 흐름 및 실태를 파악한 후 투자여건, 마케팅 상품, 투자유치의 관리 및 체계 등을 중심으로 광주지역의 FDI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FDI 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 및 제

도 개선, 마케팅활동의 활성화, 투자하기 좋은 여건조성, 사업추진계획 등의 면에서 부문별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건철·김현철(2008)의 연구와 김재철·오병기(2008)의 연구가 있다.

이건철·김현철(2008)은 무한경쟁시대에 세계화·지방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하고 대외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FDI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이나 투자확대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남의 투자여건을 살펴본 다음, 바람직한 FDI 유치를 위한 유망산업 제시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그들은 전남의 투자유치 유망산업으로 생물식품산업, 의료건강산업, 해양문화관광산업, 신소재산업, 조선산업, 물류산업을 6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들 산업에서 FDI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재철·오병기(2008)는 전남의 투자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하여 FDI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전남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지원 규모나 조건이 약간 다를 뿐 타 지역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가 실제적으로 기업 유인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투자 프로젝트별로 차등화 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사업개발 우선권 부여, 투자유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단지 변경절차의 간소화 및 기반시설 국고지원 강화, 기업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에 대해서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 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투자를 받아들이는 피투자국 요인(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실태조사 자료(한국은행) 등 2차 자료와 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장애요인, SWOT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분석

1) 연도별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FDI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건수 면에서 2002년에는 59건(광주 32건, 전남 27건)이었던 것이 감소하여 2009년 현재는 30건(광주 24건, 전남 6건)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비중의 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금액 면에서는 이와 달리 2002년에 2억 202만 9천 달러(전국의 2.2%)였던 것이 2009년에는 4억 5,928만 3천 달러(전국의 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FDI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금액 면에서는 소규모 투자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연도별 FDI 현황(신고기준)

(단위: 건, 천달러)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주	32 (1.3)	9876 (0.1)	21 (0.7)	9642 (0.1)	20 (0.6)	23380 (0.2)	32 (0.9)	7895 (0.1)	24 (0.8)	7283 (0.1)
전남	27 (1.1)	192153 (2.1)	23 (0.7)	117376 (0.9)	63 (2.0)	102544 (0.9)	19 (0.5)	4994000 (42.6)	6 (0.2)	452000 (3.9)
소계	59 (2.4)	202029 (2.2)	44 (1.4)	127018 (1.0)	83 (2.7)	125924 (1.1)	51 (1.4)	5001895 (42.7)	30 (1.0)	459283 (4.0)
전국	2409 (100)	9093000 (100)	3077 (100)	12792000 (100)	3109 (100)	11233000 (100)	3744 (100)	11711804 (100)	3131 (100)	11484178 (1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 업종별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FD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건수 면에서는 제조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면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제조업의 현황을 건수와 금액 면에서 살펴보면 건수의 경우 2002년에 42건(71.2%)이었던 것이 2006년에 63건(75.9%), 2009년 현재는 22건(광주 21건, 전남 1건)으로 73.3%를 차지하였다. 금액의 경우에는 2002년에 1억 3천 2백 7천 달러(65.3%)였던 것이 2006년에 1억 1,513만 8천 달러(91.4%), 2009년에는 1억 5,716만 3천 달러(광주 716만 3천 달러, 전남 1억 5천만 달러)로 34.2%를 나타냈다. 또한 제조업의 업종별 분포를 광주와 전남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의 경우 FDI는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통신, 광섬유·광전자부품 및 정밀금형 등의 업종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석유화학과 선박구성품, 합성수지 및 금속·비철금속 등의 업종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제조업의 업종별 분포가 두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현황을 건수와 금액 면에서 살펴보면 건수의 경우 2002년에 14건(23.7%)이었던 것이 2006년에 20건(24.1%), 2009년 현재는 8건(광주 3건, 전남 5건)으로 26.7%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의 경우에는 2002년에 6,935만 달러(34.3%)였던 것이 2006년에 1천 78만 6천 달러(8.6%), 2009년에는 3억 212만 달러(광주 12만 달러, 전남 3억 200만 달러)로 65.8%를 기록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업종별 분포를 광주와 전남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의 경우 FDI는 무역·금융과 부동산·임대 및 도·소매 등의 업종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온수공급과 관광·휴양, 운수·창고 및 문화·오락 등의 업종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업종별 분포 역시 두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농축·수산업의 경우에는 FDI가 2002년도에 전남지역에서만 3건 67만 2천 달러(0.3%)가 행해졌는데, 생수정제와 소금제조 및 버섯종균재배 등의 업종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농축·수산업에서의 FDI는 최근 들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남지역에 대해서만 극히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컨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지역적 특성과 자원 및 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과정에서 FDI가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FDI의 업종별 분포가 두 지역에서 각기 달리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전남에 대한 FDI는 건수 면에서는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면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남의 경우 여수엑스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등과 관련하여 관광·휴양 및 운수·창고(물류) 관련 업종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표 4-2〉 업종별 FDI 현황(계속)

구분	2008년						2009년					
	광 주		전 남		소 계		광 주		전 남		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업	-	-	-	-	-	-	-	-	-	-	-	-
버섯종균재배	-	-	-	-	-	-	-	-	-	-	-	-
소금제조	-	-	-	-	-	-	-	-	-	-	-	-
생수정제	-	-	-	-	-	-	-	-	-	-	-	-
제조업	30 (93.8)	7749 (98.2)	8 (42.1)	259000 (5.2)	38 (74.5)	266,749 (5.3)	21 (87.5)	7163 (98.4)	1 (16.7)	150000 (33.2)	22 (73.3)	157163 (34.2)
광섬유/광전자	-	-	-	-	-	-	-	-	-	-	-	-
자동차부품	15	3984	-	-	15	3984	2	98	-	-	2	98
선박구성품	-	-	-	-	-	-	-	-	1	150000	1	150000
농업용기계	-	-	-	-	-	-	-	-	-	-	-	-
운송용기계	2	214	-	-	2	214	-	-	-	-	-	-
고무제품	-	-	-	-	-	-	-	-	-	-	-	-
제지/목재	-	-	-	-	-	-	-	-	-	-	-	-
정밀금형	-	-	-	-	-	-	-	-	-	-	-	-
전기/전자/통신	6	3099	2	10000	8	13099	1	1224	-	-	1	1224
석유화학	-	-	-	-	-	-	5	3273	-	-	5	3273
섬유/의류/피혁	-	-	-	-	-	-	-	-	-	-	-	-
합성수지	-	-	-	-	-	-	-	-	-	-	-	-
금속/비철금속	1	214	-	-	1	214	-	-	-	-	-	-
태양광부품	-	-	3	244000	3	244000	6	2486	-	-	6	2486
기 타	6	238	3	5000	9	5238	7	82	-	-	7	82
서비스업	2 (6.3)	146 (1.8)	11 (57.9)	4735000 (95.0)	13 (25.5)	4735146 (94.7)	3 (12.5)	120 (1.6)	5 (83.3)	302000 (66.8)	8 (26.7)	302120 (65.8)
도/소매	1	50	-	-	1	50	2	80	-	-	2	80
무역/금융	-	-	1	50000	1	50000	1	40	-	-	1	40
운수/창고	-	-	7	155000	7	155000	-	-	1	65000	1	65000
부동산임대	-	-	-	-	-	-	-	-	-	-	-	-
관광/휴양	-	-	3	4530000	3	4530000	-	-	3	222000	3	222000
문화/오락	-	-	-	-	-	-	-	-	-	-	-	-
발전/온수공급	-	-	-	-	-	-	-	-	-	-	-	-
기 타	1	96	-	-	1	96	-	-	1	15000	1	15000
합 계	32 (100)	7895 (100)	19 (100)	4994000 (100)	51 (100)	5001895 (100)	24 (100)	7283 (100)	6 (100)	452000 (100)	30 (100)	459283 (1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 국가별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FDI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을 제외한 2002-2008년간 건수나 금액 면에서 아시아지역이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였으며(2002년의 금액에서는 유럽, 2008년 금액에서는 북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은 북미와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의 투자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자국의 분포를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의 경우 FDI는 일본, 미국, 중국, 캐나다, 태국 등의 외국인투자업체들에 의해서,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외국인투자업체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 중 독일의 경우에는 전남지역에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1억 1천 6백만 달러(3건)와 45억 달러(1건)의 대규모 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한국바스프(BASF)와 독일의 업체가 여수석유화학단지 및 서남해안레저도시 개발을 위해 행한 증액투자이다.

<표 4-3> 국가별 FDI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광주		전남		소계		광주		전남		소계		광주		전남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시아	21	6908	13	2,615	34	9523	9	6070	15	46750	24	52820	10	5496	35	51708	45	57204
	(65.6)	(69.9)	(48.1)	(1.4)	(57.6)	(4.7)	(42.9)	(63.0)	(65.2)	(39.8)	(54.5)	(41.6)	(50.0)	(23.5)	(55.6)	(50.4)	(54.2)	(45.4)
일본	15	1569	7	2298	22	3867	6	3497	6	5757	12	9254	8	5391	20	16793	28	22184
중국	2	5038	6	317	8	5355	2	2530	2	129	4	2659	1	53	11	2309	12	2362
싱가포르	1	42	-	-	1	42	-	-	2	5864	2	5864	1	52	2	2500	3	2552
홍콩	1	84	-	-	1	84	-	-	5	35000	5	35000	-	-	-	-	-	-
태국	1	167	-	-	1	167	1	43	-	-	1	43	-	-	-	-	-	-
인도네시아	1	8	-	-	1	8	-	-	-	-	-	-	-	-	1	106	1	106
말레이시아	-	-	-	-	-	-	-	-	-	-	-	-	-	-	1	30000	1	30000
북미	9	2809	8	53517	17	56326	9	3185	5	45251	14	48436	7	10851	22	31350	29	42201
	(28.1)	(28.4)	(29.6)	(27.9)	(28.8)	(27.9)	(42.9)	(33.0)	(21.7)	(38.6)	(31.8)	(38.1)	(35.0)	(46.4)	(34.9)	(30.6)	(34.9)	(33.5)
미국	7	1103	8	53517	15	54620	7	2290	5	45251	12	47541	3	2066	21	26927	24	28993
캐나다	1	60	-	-	1	60	1	44	-	-	1	44	4	8785	-	-	4	8785
버뮤다	1	1646	-	-	1	1646	-	-	-	-	-	-	-	-	-	-	-	-
케이만군도	-	-	-	-	-	-	-	-	-	-	-	-	-	-	1	4423	1	4423
버진아일랜드	-	-	-	-	-	-	1	851	-	-	1	851	-	-	-	-	-	-
유럽	-	-	6	136021	6	136021	-	-	2	24075	2	24075	2	6980	3	19325	5	26305
	-	-	(22.2)	(70.8)	(10.2)	(67.3)	-	-	(8.7)	(20.5)	(4.5)	(19.0)	(10.0)	(29.9)	(4.8)	(18.8)	(6.0)	(20.9)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광주		전남		소계		광주		전남		소계		광주		전남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독일	-	-	3	116000	3	116000	-	-	1	1950	1	1950	-	-	1	54	1	54
노르웨이	-	-	-	-	-	-	-	-	-	-	-	-	2	6980	-	-	2	6980
프랑스	-	-	2	16366	2	16366	-	-	-	-	-	-	-	-	2	19271	2	19271
네덜란드	-	-	1	3655	1	3655	-	-	1	22125	1	22125	-	-	-	-	-	-
기타	2 (6.3)	159 (1.6)	-	-	2 (3.4)	159 (0.1)	3 (14.3)	387 (4.0)	1 (4.3)	1300 (1.1)	4 (9.1)	1687 (1.3)	1 (5.0)	53 (0.2)	3 (4.8)	161 (0.2)	4 (4.8)	214 (0.2)
합계	32 (100)	9876 (100)	27 (100)	192153 (100)	59 (100)	202029 (100)	21 (100)	9642 (100)	23 (100)	117376 (100)	44 (100)	127018 (100)	20 (100)	23380 (100)	63 (100)	102544 (100)	83 (100)	125924 (1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표 4-3> 국가별 FDI 현황(계속)

구분	2008년						2009년					
	광주		전남		소계		광주		전남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시아	17 (53.1)	3444 (43.6)	11 (57.9)	220000 (4.4)	28 (54.9)	223444 (4.5)	5 (20.8)	398 (5.5)	3 (50.0)	162000 (35.8)	8 (26.7)	162398 (35.4)
일본	14	3248	-	-	14	3248	3	305	-	-	3	305
중국	3	196	11	220000	14	220196	2	93	2	12000	4	12093
싱가포르	-	-	-	-	-	-	-	-	1	150000	1	150000
홍콩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북미	7 (21.9)	672 (8.5)	3 (15.8)	230000 (4.6)	10 (19.6)	230672 (4.6)	13 (54.2)	4566 (62.7)	2 (33.3)	275000 (60.8)	15 (50.0)	279566 (60.9)
미국	3	664	3	230000	6	230664	8	4560	2	275000	10	279560
캐나다	-	-	-	-	-	-	-	-	-	-	-	-
버뮤다	-	-	-	-	-	-	-	-	-	-	-	-
케이만군도	4	8	-	-	4	8	5	6	-	-	5	6
버진아일랜드	-	-	-	-	-	-	-	-	-	-	-	-
유럽	3 (9.4)	2553 (32.3)	1 (5.3)	4500000 (90.1)	4 (7.8)	46553 (0.9)	1 (4.2)	940 (12.9)	1 (16.7)	15000 (3.3)	2 (6.7)	15940 (3.5)
독일	-	-	1	4500000	1	44000	-	-	-	-	-	-

구 분	2008년						2009년					
	광 주		전 남		소 계		광 주		전 남		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노르웨이	1	565	-	-	1	565	1	940	-	-	1	940
프랑스	2	1988	-	-	2	1988	-	-	-	-	-	-
네덜란드	-	-	-	-	-	-	-	-	1	15000	1	15000
기 타	5 (15.6)	1226 (15.5)	4 (21.1)	44000 (0.9)	9 (17.6)	4501226 (90.0)	5 (20.8)	1379 (18.9)	-	-	5 (16.7)	1379 (0.3)
합 계	32 (100)	7895 (100)	19 (100)	4994000 (100)	51 (100)	5001895 (100)	24 (100)	7283 (100)	6 (100)	452000 (100)	30 (100)	459283 (100)

4) 유형별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FDI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4-4>에서처럼 신규투자(greenfield)와 증액 투자) 모두 주식취득을 통한 투자형태를 띄고 있으며, 건수 면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증액투자보다 신규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08년과 2009년은 증액투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금액 면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기존의 투자(기존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규모에 있어서 신규투자는 소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증액투자는 대규모의 장치산업에 대한 공장증설이나 관광 휴양단지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4-4> 유형별 FDI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구 분		신규투자	증액투자	합 계	
2002년	광 주	건 수	23(72.0)	9(28.1)	32(100)
		금 액	8687(88.0)	1189(12.0)	9876(100)
	전 남	건 수	13(48.1)	14(52.0)	27(100)
		금 액	3279(1.7)	188874(98.2)	192153(100)
	소 계	건 수	36(61.0)	23(39.0)	59(100)
		금 액	11966(6.0)	190063(94.0)	202029(100)

2) 증액투자는 최초투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차적인 과정으로서 계속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Kogut, 1983) 이러한 증액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초투자 또한 ‘에비선행투자(platform investment)’로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구 분		신규투자	증액투자	합 계	
2004년	광 주	건 수	15(71.4)	6(29.0)	21(100)
		금 액	6658(69.0)	2984(31.0)	9642(100)
	전 남	건 수	11(48.0)	12(52.1)	23(100)
		금 액	11680(10.0)	105696(90.0)	117376(100)
	소 계	건 수	26(59.0)	18(41.0)	44(100)
		금 액	18338(14.4)	108680(86.0)	127018(100)
2006년	광 주	건 수	10(50.0)	10(50.0)	20(100)
		금 액	8667(37.0)	14713(63.0)	23380(100)
	전 남	건 수	38(60.3)	25(40.0)	63(100)
		금 액	10671(10.4)	91873(90.0)	102544(100)
	소 계	건 수	48(58.0)	35(42.1)	83(100)
		금 액	19338(15.3)	106586(85.0)	125924(100)
2008년	광 주	건 수	14(43.8)	18(56.2)	32(100)
		금 액	2790(35.3)	5105(64.7)	7895(100)
	전 남	건 수	—	19(100)	19(100)
		금 액	—	4994000(100)	4994000(100)
	소 계	건 수	14(27.5)	37(72.5)	51(100)
		금 액	2790(0.1)	4999105(99.9)	5001895(100)
2009년	광 주	건 수	8(33.3)	16(66.7)	24(100)
		금 액	721(9.9)	6562(90.1)	7283(100)
	전 남	건 수	—	6(100)	6(100)
		금 액	—	452000(100)	452000(100)
	소 계	건 수	8(26.7)	22(73.3)	30(100)
		금 액	721(0.2)	458562(99.8)	459283(1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 규모별 현황

광주·전남지역의 FDI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광주지역에서는

1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건수 면에서 전체 비중의 62.5%(15건)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투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41만 3천 달러)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액 면에서는 1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미만의 중규모 투자가 전체 FDI의 62.7%(3건, 4백 56만 6천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1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4건, 4억 4천만 달러)을 차지하였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FDI가 최근 들어 소규모 투자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4-5> 규모별 FDI 현황(2009년)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광주		전남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만 달러 미만	15 (62.5)	413 (5.7)	-	-	15 (50.0)	413 (0.1)
10만 달러~ 100만 달러 미만	6 (25.0)	2,304 (31.6)	-	-	6 (20.0)	2304 (0.5)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미만	3 (12.5)	4,566 (62.7)	2 (33.3)	12000 (2.7)	5 (16.7)	16,566 (3.6)
1000만 달러 이상	-	-	4 (66.7)	440000 (97.3)	4 (13.3)	440000 (95.8)
합계	24 (100)	7283 (100)	6 (100)	452000 (100)	30 (100)	459283 (1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 외국인직접투자 장애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FDI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에 투자한 125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2002년에 실시한 FDI 실태조사 결과와 전의천(2000), 강태구(2003)의 연구 등을 참조하여 분석·정리하였는데,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이미지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인구가 145만 명을 상회하고 산업발전

에 필요한 집적화가 가능한 도시지역으로써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낙후된 농도(農道)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보다 우세하다. 또한 두 지역이 고유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 및 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각기 달리 수립하여 수행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산업을 선정·육성하는 과정에서 FDI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FDI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요인을 두 지역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과 두 지역 공통의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1) 두 지역의 개별적 장애요인

여기서는 광주·전남지역에 FDI를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FDI 유치정책 및 노력 차원(효과적인 FDI 유치전략 및 노력 부족; FDI 유치의 전문성 부족), 환경 및 경제여건 차원(차별화된 우위요소의 부재; 매각·합작대상 기업의 부족), 지역정서 및 이미지 차원(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성; 전통적 농도의 이미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광주지역의 장애요인

① 효과적인 FDI 유치전략 및 노력 부족

지자체의 FDI 유치정책 및 노력 차원에서 볼 때 광주광역시는 FDI 유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FDI 유치전략 수립을 통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FDI 유치성도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는 전반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유치설명회는 물론 소규모의 현지방문 투자유치설명회도 병행하고 있다.³⁾

② 차별화된 우위요소의 부재

환경 및 경제여건 차원에서 볼 때 광주지역은 국내의 여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적인 우위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노임도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3) 광주광역시는 최근 들어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장용지 매입비 지급, 보조금 및 금융지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창업민원 원스톱 처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2008년을 '투자유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는 저렴하지만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는 저렴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광주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미국의 앨라배마 주가 현대 자동차의 1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용지구입, 시설투자, 종업원교육 등에 2억 5천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고 노조설립을 막아주겠다는 확약은 지방정부가 FDI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예이다.

③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성

지역정서 차원에서 볼 때 광주지역의 주민들은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수도권이나 여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본을 들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부를 유출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높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초기에는 본국에서 필요인력을 파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비중이 낮아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전남지역의 장애요인

① FDI 유치의 전문성 부족

FDI 유치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전라남도도 그동안 FDI 유치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협상력 등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도 FDI 유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팀의 조직정비와 전문인력의 충원뿐 아니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외국어, 법률, 이문화, 협상력 등)가 필요하다.

② 매각 및 합작대상 기업의 부족

전남지역은 경기, 경남, 경북 등 다른 도에 비해 공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원하는 매각 및 합작대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이다. 전남지역의 FDI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 내 일부 대기업의 해외매각과 이들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해외자금이 유입되고⁴⁾ 대불 외국인전용단지의 조성 등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4) 외환위기 이후 전남지역에 대한 주요 FDI로는 1998년 미국 보워터사(社)의 한라제지 인수(4억달러)와 독일 degussa의 LG카본 인수(1억달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한국바스프(BASF)의 증액투자(4억달러)가 이루어졌다.

사업매각 및 인수합병(M&A) 등이 마무리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가치가 있는 적합한 이 지역의 투자대상 기업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석유화학 관련 산업 외에는 상대적으로 매각 또는 합작대상 기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③ 전통적 농도의 이미지

전남지역은 경기,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도라는 이미지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전라남도가 주요 투자유치 업종인 정밀화학·조선·신소재·생명공학 등 고도기술산업에서 FDI를 유치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가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물·조선·신소재·물류·해양관광 등 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곳,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의 이미지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2) 두 지역의 공통적 장애요인⁵⁾

(1) 국제전문인력의 부족

광주·전남지역은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여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직접 교류할 수 있고,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등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제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주요 투자유치업종인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기·전자·정밀화학·신소재·생명공학 등의 고도기술산업에서 FDI를 유치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 FDI 유치에 성공한 나라들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제전문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실효성 부족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가 주로 외형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서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많다. 반면

5) 여기에서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에 투자한 125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2002년에 실시한 FDI 실태조사 결과와 논문,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이 지역의 공통적 장애요인을 분석·정리하였다.

백만 달러 단위의 소액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적으며,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량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⁶⁾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광주·전남지역에 투자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역에 투자를 신청한 기업 중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착공을 지연하는 등 미가동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⁷⁾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상의 문제

광주·전남지역에 진출한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데 애로를 느껴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지역내 예금은행을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담보위주의 대출이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외국인 주거환경상의 불편 문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외국인학교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여전히 외국인 임대주택이나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 외국인 서비스시설 등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도로의 경우 표지판에 영문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비용이나 기반시설 지원 및 의료·교통·주택 지원 관련사항은 지식경제부 등 13개 중앙부처장(장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는 고용이나 교육훈련 지원도 이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7) 광주·전남지역에 투자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의 미입주 업체들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인센티브와 사후관리의 부족 등으로 타 지역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외국인직접투자 SWOT 분석

광주·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광주·전남지역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경제권 중심의 지정학적 위치 · 광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활성화 · 산업화 가능한 풍부한 자연자원 및 친환경 조성 · 지역간 연계강화로 융·복합 산업화 실현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산업구조와 생산기반 저조 · 산업간 연계 미흡 · 고령화와 지속적인 고급인력 유출 · 수도권과의 원거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환황해경제권 가시화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SOC 확충 · 녹색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성장 도모 ·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여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 및 추진에 따른 산업 환경변화 · 환황해권역의 개발경쟁 가속화 ·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간 경쟁 심화 · 국내의 투자의 수도권 집중

V.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FDI의 유치에는 투자국 요인, 피투자국 요인, 투자기업 요인 등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서는 투자기업 요인과 투자국 요인보다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피투자국 요인(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과 지역의 투자환경(SWOT 분석) 및 현실을 반영하여 앞서 분석한 광주·전남지역의 FDI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양 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한 FDI 유치전략

정부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는 광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정보가전산업,

디자인산업을, 전라남도는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전략산업진흥시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로 구성된 호남광역경제권은 정부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이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광소재산업을 권역내 대표산업으로 선정하여 세부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권역내 지자체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 전략산업육성정책 측면에서는 광주시는 광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정보가전산업, 디자인산업을 특화시켜 이들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효율적인 FDI 유치를 위해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진흥전략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광주 근교권은 생물식품, 의료건강, 전자·자동차부품, 신에너지산업을, 동부권은 신소재, 화학, 물류산업을, 서남권은 조선, 재생에너지산업을, 서남부 해양권은 해양문화관광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이들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정책 측면에서는 3개 지자체가 생물식품, 의료건강,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해양문화관광산업에서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을 호남 광역경제권 내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윈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홍보 및 상담, 투자유치단 파견 등 해외투자 유치활동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두 지역의 공통적 장애요인 극복차원에서의 FDI 유치전략

1) 담당공무원의 FDI 유치역량 강화

FDI 유치업무는 법률, 이문화, 협상력, 외국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을 창구로 하여 투자상담에서부터 인허가 및 최종결정까지 제반사항을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는 FDI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주요 투자유치업종인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기·전자·정밀화학·신소재·생명공학 등의 고도기술산업에서 FDI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 FDI 유치에 성공한 나라들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

전남의 지방정부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FDI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장단기 해외연수프로그램 등의 확대를 통해 FDI 유치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유지 종합지원체계(민관합동 전담기구) 구축

세계적으로 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면 이들 국가는 FDI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지역발전기구(RDA), 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IDA), 싱가포르의 지역개발청(EDB)이 그 예이다(김재철·오병기, 2008). 그런데 광주·전남의 지방정부에는 FDI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기구가 없으며, 다만 행정조직 내에 FDI 유치정책을 담당하는 조직과 서울, 일본, 중국 등 일부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FDI의 효과적인 유치와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FDI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투자별로 전담인력(Project Manager)을 배치하여 투자상담 및 준비, 재무 및 파급효과분석, 인허가 및 인센티브 결정, 실행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기존에 운영중인 관련기구 등과 연계하여 FDI 유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뿐 아니라 해외 한인상공회, 외국의 상공회의소와도 연계함으로써 해외시장 정보나 투자유치 관련 정보수집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자등인센티브제 도입

지방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세제 및 관세상의 유인책, 재정지원, 제품판매 허용, R&D지원, 사전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UNCTAD, 1996b). 그리고 그밖에 재산수용에 대한 보증, 과실송금 보장, 투자자본에 대한 환수보장, 기타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적인 투자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국내기업과의 사업연결, 국내시장정보 제공, 국내 고용여건에 대한 정보제공, 최적 입지선정 지원,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지원, 운송정보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UNCTAD, 2002).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이나 파급효과가 미약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재무건전성과 성공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 등을 전담기구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에 따라 다양한 기존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및 정주환경 개선

광주지역은 저항과 투쟁으로 인한 왜곡된 지역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노사분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경기,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주요 투자유치업종인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기·전자·정밀화학·신소재·생명공학 등의 고도기술산업에서 FDI를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타 지역과 비교된 노사분쟁백서를 발간하여 노사분규가 결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산업집적지구별로 기업과 노동자,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사분쟁중재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발생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사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라남도도 낙후된 지역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생물·신소재·조선·물류·해양관광 등 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곳,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의 이미지로 새롭게 재정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남을 해양도(海洋道)로 포지셔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외국인 임대주택이나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 외국인서비스시설 등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VI. 요약 및 결론

광주·전남지역의 FDI는 2009년 현재 전국 대비 건수 면에서는 3,131건 중 30건으로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면에서는 114억 8,417만 8천 달러 중 4억 5,928만 3천 달러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의 경우 건수 면에서는 24건으로 0.8%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면에서는 7백 28만 3천 달러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의 경

우에는 건수 면에서는 6건으로 0.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면에서는 4억 5천 2백만 달러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두 지역의 FDI는 우리나라 전체 비중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효과적인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광주·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에 대해 두 지역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들 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한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입안하여 적극 시행해 가야 한다.

다음으로, 광주·전남지역의 FDI 장애요인 극복 차원에서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FDI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FDI 유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담당공무원을 창구로 하여 투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FDI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FDI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통해 FDI 유치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FDI 유치에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FDI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FDI의 효과적인 유치와 실효성 있는 윈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FDI 유치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투자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외국인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기존에 운영 중인 관련기구 등과 연계하여 FDI 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세제 및 관세 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가 FDI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적인 홍보와 마케팅활동을 통해 새로 FDI를 유치하는 비용이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미 이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담기구 내에 구축,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내 투자의 지속적 유지·확대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FDI 유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광주지역은 노사분규가 심하고 노동운동이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공업화가 더디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주택, 교육, 의료 등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FDI 유치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기업, 지역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 매진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FDI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FDI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지역특성에 따라 광주와 전남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 지역이 FDI 유치과정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의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련 자료수집의 한계와 제한된 지면 등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고, 또한 다른 경쟁국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FDI 유치전략과의 비교 분석도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강태구, “광주·전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경영논총』, 제28집,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 광주광역시, “광주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 중·단기계획 연구결과 보고서』, 광주광역시 통상협력과, 2003.
- 권순우·김성표, “외국인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CEO Information 제38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김용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2004.
- 김재철·오병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방안”, 『전남비전21』, 통권 제52호, 전남발전연구원, 2008.
- 김준동,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김준동,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유치촉진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00.
- 박상철, “광주권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경제연구』, 제11집, 광주광역시, 1998.
- 박용규·송영필·강신겸,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999.
- 박의범·김치호, “강원지역의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전략”,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5.
- 산업자원부, “일석오조의 외국인투자”, 2001.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 및 유치체제 강화대책”, 2003.
- 송영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5.
- 오수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이건철·김현철, “전남의 기업투자유치 여건과 과제”, 『전남비전21』, 통권 제52호, 전남발전연구원, 2008.
- 이남구,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연구: 국제경쟁력강화 정책의 관점에서”,

-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6.
- 이종성·송영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사례와 확대방안”, 『지역경제·개발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3.
- 이지석,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월간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4.
- 이학노, “한국과 아시아 경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비교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e-비즈니스학회, 2010.
- 이홍구, “외국인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임성훈,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 여택동·이민환,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산업별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 학회지』, 제34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9.
- 전의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방안”,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 정대철, “경남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분석 및 전략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1999.
- 최백렬, “전북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평가”,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5.
- 한국신용평가,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효과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분석”, 1987.
-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실태조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도자료, 2002.
-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Chen, E. K.,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chnology and Employment"*, London, Macmillan, 1983.
- Coughlin, C. C., J. V. Terza and V. Arromdee, "State Characteristics and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1991, pp. 675-683.
- Delorme, J., "The Changing Legal Framework for Technology Transfer: Some Implications", in OECD, *North/South Technology Transfer: The Adjustment Ahead*, Paris, OECD, 1982.
- Dunning, J. H.,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 Business Studies*, 11(1), 1980, pp. 9-32.
- Dunning, J. H., *"Japanese Participation in British Industry"*, London, Croom Helm, 1986.
- Friedman, J., D. A. Gerlowski and J. Silberman, "What Attracts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Evidence from Branch Plant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4), 1992, pp. 403-418.
- Guisinger, S. E., and Associates, *"Investment Incentiv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Production, and Investment"*, New York : Praeger, 1985.
- Kogut, B.,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Sequential Process", in C. P. Kindleberger and D. Audretsch (ed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1980s*, Cambridge, Mass., MIT Press, 1983, pp. 35-56.
- OECD, *"Open Markets Matter: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Paris, OECD, 1998.
- Root, F. R., *"Entry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Markets"*, Revised and Expanded ed., New York: Lexington Books, 1994.
- UNCTAD,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rvey of the Evidence"*, New York, UN, 1992.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4: Transnational Corporations, Employment and Workplace"*, New York, UN, 1994.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Investment, Trade and International Policy Arrangements"*, New York, UN, 1996a.
- UNCTAD, *"Incentiv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UN, 1996b.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New York, UN, 1998.
- UNCTAD, *"The World of Investment Promotion at a Glance: A Survey of Investment Promotion Practices"*, New York, UN, 2002.
- Vernon, R., *"Storm over the Multinationals: The Real Issu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Weiskopf, T. E., "The Impact of Foreign Capital Inflow on Domestic Saving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 Feb., 1972, pp. 25-38.
- Westphal, L. E., and K. S.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Development Center Research, IBRD, 1973.

ABSTRACT**A Study on the Attracting Strategy of FDI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Jae-Hee Shim* · Hyung-Yeop Baek**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y for attracting FDI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using the secondary data collected by homepage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The strategy for attracting FDI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is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Gwangju and Jeonnam must progressively attract FDI by adjust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regional industry policy direction. Second, in order to attract FDI consistently, the local governments of Gwangju and Jeonnam must enhance the ability of local officials to attract FDI. Third, in order to attract FDI effectively, the local governments of Gwangju and Jeonnam must build a complete system to support FDI. Fourth, in order to attract FDI effectively, the local governments of Gwangju and Jeonnam have to apply different investment incentives according to FDI effectiveness. Fifth, the local governments of Gwangju and Jeonnam must consistently support foreign companies in order to induce FDI expansion by foreign companies which have already invested in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Finally, in order to attract FDI consistently, the local governments of Gwangju and Jeonnam must improve the negative images and living environments of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Key Words :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Attracting Strategy of FDI, Investment Incentives, Foreign Company, Regional Industry Policy Dire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sun University

** Principal Researcher, Jeonnam Technopark